

유성 On 마을 별★ 찰칵!



열 네 살 우리들의 오롯한 시선을 담은
상큼발랄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야기





대전강남대학교

하나. 다정히 바라보면 소중한
_우리 학교

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_반석천변

셋. 찾아가면 갈수록 점점 애정이 가는
_유성오일장



우리 지역 청소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자연스러움’

울초 유성 on마을별 교육사업으로부터 자유학기제 아카이빙 매거진 만들기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였다. 교과서 밖 삶의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생각과 느낌을 꾸밈없이 담은 기록을 상상하며 15주 만남을 촘촘히 기획했다.

스크린 속 그 무엇이든 손가락 하나로 경험 가능하다고 믿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두 발로 직접 걸으며 보고, 듣고, 말고, 맛보고, 소통하지 않는 이상 ‘우리 동네’와의 결속감은 갖기 어렵다. 마을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일상을 가까이, 깊이,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 자신과 친구, 학교와 주변 환경을 ‘마을’이라는 확장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랐다.

꽃망울이 통통해 질 때 즈음 만나 봄꽃의 절정을 함께 즐기고, 녹음이 짙어질 무렵 필름 카메라를 들고 길 위로 나섰으며, 장맛비가 퍼붓는 날 아카이빙 활동을 마무리 했다. 기록 여기저기 자연스레 묻어나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다정함, 생각과 느낌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솔직함과 유쾌함은 어른으로 살아가며 잊고 있었으나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였다. 한 해의 절반을 함께 통과해 오며 지도 감사의 마음도 여름비 맞은 나무 처럼 훌쩍 자랐다. 고맙습니다. 나의 어린 스승님들! 추억 조각들을 구슬 꿰듯 작은 책으로 엮어놓고 보니 장대중학교 친구들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지역 서점에게 청소년 마을 교육 기회를 주신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그리고 협업에 기쁘게 응해주신 김영미 선생님, 점다운 대표님, 전민제 실장님, 임다운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열 네 살의 기록 하나

다정히 바라보면 소중한
_우리 학교

여름빛의 우리에게

글_ 송윤지

겨울엔 추위 힘들더라도 이겨내서 날씨가 도와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피는 꽃, 청춘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이런것이 청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많다, 햇빛도 빛나더라, 청위하게 빛날 우리는 가끔 현실을 잊어버리고 마냥 가벼운 웃음을 지을 우리가 이곳에서 빛나고 찬란했다. 한걸음 한걸음 걸으며 추억에 잠길수도, 저번에 누구랑 왔는데, 애들이랑 이런일이있었지, 아픈기억은 피하고 즐거운 기억만 찾으려는 나의 본능이 미웠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를 주제로한 노래들의 가사들이 생각났다. 뽕뽕했던 가사들이, 우리를 주제로하는 노래들, “하나뿐인 지금의 우리는 뜨거운 여름 저 태양 한가운데 비가 내려도 우린 모두 노래 부르네” 이노래를 쓴 작사가는 우리의 시절을 그리워 하는것같았다.나 또한 지금의 우리를 그리워 할거다, 충분히 지금의 우리를 그리워할 가치가 있고 미래에 나는 지금만큼 행복할 자신이 없었다. 그만큼 우리는 행복했어서 작사가도 지금의 우리같은 10대를 보낸것일까 봄이 오고 벚꽃이 지는, 곧 여름이 다가오는 이시점에서 청춘이라는 단어와 닮은 화화가 우리라는 것을, 따뜻한 햇빛아래에 빛나는길을 같이 걸어갈 나의 친구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 학교 교실은 도서관 이다.

교실 곳곳에서 추억을 펼쳐볼 수 있기에.
가끔 조심하지 못하다 넘어져서
여린살결에 가시가 파고들어가
따끔따끔 아팠던 마루바닥.
이른 시간이지만 모두가 모여있는 아침,
선생님이 바빠질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릴 때
주목을 끌기위해 이용하시는 교탁.
조금 무거운 교과서들을 불평없이 받쳐들어주고
아이들의 장난에도 묵묵히 버텨주는 책상.
뜨거운 햇살빛이 교실을 침범해 올 때
유일한 방어수단이 되어주는 블라인드.
없으면 수업 진행이 어려워질 정도로
우리의 공부시간에 적응 되어버린 스마트 칠판.
오랜 1년 동안 함께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추억을 쌓고 쌓아
세월의 흔적을 만든다.
교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추억이라는 책 제목들이 나란히 쌓여있다.
이렇게 귀한 도서관이 또 어디있을까?

글/그림_ 임태이





우리 학교에만 있는 특별한 무엇

글 윤서정

이건 우리 학교 자랑이야. 우리 학교는 1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 잠디오를 해. 잠디오는 라디오+장대를 합친 말이야. 우리 학교는 특별하게 학생/선생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어. 잠디오는 익명도 되고, 점체를 밝힐 수도 있어. 너무 좋지 않아? 잠디오는 방송부원이 사연을 읽어주고, 그 사연을 아침 조회 때 전교생이 다 들어. 사연이 끝나면 노래도 틀려줘서 우울한 아침에 힘을 더해줘!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는 두 곡. 부석순-파이팅 해야지, 에스파-슈퍼노바야 어때? 특별하지 않아?

이것뿐만이 아니야. 우리학교는 '장대 비전' 이라는게 있거든? 이게 학교에서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축제 때 사용할 수도 있어! 준비물을 미쳐 구매하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비전을 주고 구매할 수도 있어! 비전을 받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내가 알려줄게!

첫번째 방법이야. 그건 작은 시험같은거 점수를 잘 맞으면 비전을 줄때가 있어! 두번째 방법은 선생님께서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거야! 잘 완수하면 비전도 받고, 선생님과 친해질 수도 있어!

세번째 방법은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가끔씩 골든벨 같은 걸 할 때 비전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 때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거야! 재미있을것 같지 않아?



유성구 장대동에서 성장 중인
우리들의 순간을 캡처 중



진우가 원룡에게

최근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해진 귀여운 친구가 있다.

그 귀여운 친구의 이름은 류원룡이다. 원룡이는 원래 초등학교때 나와 같은 학교였지만 체조를 하기 위해 전학갔다가 중학교 때 다시 만났다.

1학년때 같은 반이 되었다. 원룡이는 참 귀엽고 재미있는 친구같다. 원룡이는 게임을 잘한다. 왜냐하면 게임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원룡이는 생각도 귀엽다. 원룡이는 장난끼도 많다. 그래서 별점도 많다. 원룡이는 가끔 매우 엉뚱하다. 그래서 더더욱 웃긴 친구 같다.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원룡이 진우에게

최근 중학교에서 친해진 남자아이가있다 그 아이는 진우이다. 진우는 초등학교 때 보고 내가 운동을 하러 떠난 이후로 보지 못했다. 근데 중학교에서 다시 만나 친한 친구가 되었다. 우연히 진우와 같은반이 되었다.

진우와 나는 맞는점이 많다. 진우는 축구를 좋아한다. 진우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축구선수를 좋아하고 나도 한국 축수선수를 많이 좋아한다. 또 진우는 장난끼가 많다. 진우는 정말 예쁜 아이이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야겠다.



내 책 취향이 궁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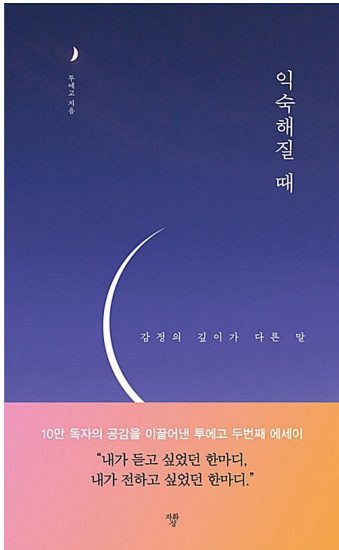
글 이소운

우리학교 도서관에는 책이 정말 많다. 그 많은 책들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 첫번째는 <익숙해질 때>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익숙해질 때>는 내가 인생에서의 힘들고 익숙해져 있을때 위로해주는 말과 그 말을 글로 써 놓은 책이다. 내가 듣고 싶었던 한마디,내가 전하고 싶던 한마디가 이 책에 담겨져 있다.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내가 속상할때 답답할때 읽었던 책이다.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을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것같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다. 죽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그 때를 조용히 달래준 책이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챕터 몇개가 있다. 첫번째는 “마음의 문” 이라는 제목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늘 좋은 사람이 될수는 없었다.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무심결에 상처를 입히는 인간관계. 그것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날수 있게 위로해주는 챕터이다.

두번째 챕터는 “억지로 웃었다” 라는 제목이다. 부모님들 앞에서 힘들고 울고싶어도 마음속 깊이 숨겨 안 보이게 하여 겉으로는 웃었다. 하지만 그럼세 눌러 담다 보니 내가 나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이 챕터를 읽고
행복이 뭐라고 묻는다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
조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다."**

책덕후 소운의 추천도서 :
〈익숙해질 때〉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이 챕터를 읽고 내가 웃고 있었던 것은 진짜 행복해서가 아니라
억지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챕터를 읽고 행복이 뭐라고 묻
는다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니, 조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
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다.

두번째 책은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이라는 소설이다. 딸의 복
숨을 빼앗은 별이 고작 봉사활동과 교육 몇시간이 전부인 법,재
력과 권력이라면 어떠한 잘못도 댓가도 치르지 않고 떳떳하게 살
아가는 세상을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을 활용해 쓴 장편소
설이다. 딸과 아내를 보내고 한가정이 아버지가 딸을 죽인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다른 추리소설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가
능할수 있을 것 같은 소설이었다. 사고는 결국 살인이고 이유없는
살인은 없고 살인의 이유는 단순했다.

“혼자만 행복해보여서 화가 났어.”

이 대사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있는 대사인것 같다.

‘힘이 있던 없던 내 곁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각자의 별이다. 각자
의 별을 서로 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책
이다. 작가의 말에서 ‘내 곁에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좋았다.

학교 안 광장

글 김연우

밝게 뜬 해는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날씨라고 말해준다. 학교에 들어가니 광장에서 쓰러질 것 같은 소나무가 나에게 인사한다. 지금은 고요한 학교 광장이지만 점심먹고, 학교 끝나고 우리 광장은 장대학생으로 북적북적 할 것이다.

광장의 왼쪽을 보니 땀을 흘리며 만든 텃밭이 있다. 텃밭엔 여러 씨앗이 심어져있다. 그중 딸기가 제일 먼저 예쁜 모습을 보였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햇볕 아래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텃밭은 우리의 흔적이다.

광장의 오른쪽을 보니 숲속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다. 높게 솟은 나무들 애벌레, 개미, 매미껍질 등등 숲속에서 불법한 풍경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나는 숨막히는 세상속에 잠시라도 숲을 느낀다. 아름다움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

혹시 대기 만성이란 말을 아시나요? 큰 그릇은 늦게 채워진다. 나는 오늘도 소나무를 보며 난 큰그릇이야 라고 외칩니다.





열 네 살의 기록 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새로운
_반석천변



내 마음의 넓이는 몇일까

글 최은총

화창한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푸릇푸릇한 잎들을 달고 위로 쪽 뻗어있는 나무들. 푸른 나무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벚꽃나무. 벚꽃나무도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않았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차가운 물이 흐르는 하천변이 보인다. 하천변 사이를 건너 갈 수 있는 돌다리까지. 마치 한 만화 속에 나와있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학교 주변에는 온통 새 건물들 밖에 없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세계에 와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길.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돌 계단이 눈에 띄었다. 돌 계단. 맨날 학교에서 보고, 계단 위로 걸어다니지만 학교의 계단과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돌 계단의 느낌은 달랐다. 아, 생각해보니 우리 학교 계단도 돌 계단인건 마찬가지다. 학교 계단 주변에 있는 쇧덩어리들. 그것 때문에 다른 느낌이 드는걸까? 아니면 학교 계단에 붙어있는 좋은 글귀와 속담들 때문에? 이걸 아는 것 같다.

학교 계단은 불평하며 올라간 적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아.. 다음시간 국어야!’ 항상 불평하고 생각만 해도 짜증났던 것들. 어쩌면 공부를 꼭 잘해야한다는 압박감과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하천변 돌 계단은 음.. 한마디로 자유로운 느낌일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있는. 보기만 해도 시원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쪽 뻗어있을까. 어쩌면 위 아래로만 뻗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양 옆으로만 뻗어져 있을 수도 있다. 넓이. 마음에도 넓이가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의 넓이는 몇일까.

지금 생각해보니 짧은 시간 안에 짧더라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돌 계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돌 계단쪽으로 두 명의 친구가 걸어온다. 진효와 서영이. 진효와 서영이가 돌 계단 위로 발을 내딛을 때까지 기다렸다.

“멈춰봐! 사진 찍어줄게.”

“사진? 너무 좋지~”

“하나, 둘, 셋!”

“찰칵”

필름카메라 안에는 화창한 날씨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푸릇푸릇한 잎들을 달고 위로 쪽 뻗어있는 나무들. 푸른 나무 사이로 조금씩 보이는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학생 두명이 두 손가락을 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쁘다.’ 정말이지 예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음 모으기

글/그림 김진호

시골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둘
아기자기한 마음들을 모아본다.
그러기를 한참,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하나둘 모은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점점 커져가는 마음들,
각각 다른 종류의 꽃과 풀들인데도,
서로서로의 사이가 좋아 보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매력대로 빛이 나서,
기분이 몽글해졌다.
완성된 내 마음을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함께 읽은 <연남천 풀다발>, 함께 만든 반석천 풀다발

우리의 쉼터. 반석천

글 이정운

마치 쓰레기와 친구가 된 것 처럼 우리 주변에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반석천 산책에서 친구들과 같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이런 좋은 환경,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에도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자연이 더 파괴되고 있구나.”

모두가 눈을 찌푸렸던 담배꽂초, 분해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페트병, 먹고나서 버리기 귀찮아서 길에 버렸던 각종 간식 비닐 쓰레기와 같이 반석천을 파괴하고있던 각종 쓰레기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 대신에 나부터 실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불편함을 조금 감수했다면 우리의 반석천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페트병 대신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다면 우리 반석천은 조금의 미소를 되찾지 않았을까요? 반석천은 우리에게 많은걸 누리게 해주지만 정작 우리는 반석천을 파괴하고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쉼터이자 터전 반석천을 도울 차례입니다. 산책하다가 작은 비닐 쓰레기라도 주워봅시다. 포장할때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가져가서 음식을 받아보는건 어떨까요?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분명 반석천을 웃게 만들 것 입니다.





반석천의 형태

글 김서한

산들산들 들려오는 바람소리
두벅두벅 걸음소리
쟁쟁 햇볕소리
꿀꿀 물 지나가는 소리

한 장소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소리,
같으면서도 세세하게 다른 그 소리들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내지

하하호호 웃는 소리도,
시끌벅적 말하는 소리도
집중해들으면 형태가 있어

바람이 뽀뽀 시원한 날씨도,
따뜻한 바람도
바람끼리 온도를 나타내며 조화를 이루어 내지

울림의 형태냐고?, 글자로써의 형태라고?
아니야, 그건 마음의 형태야

풀이 산들 바람에 흔들려 풀이 날라가는 풍경,
물이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풍경,
꽃들이 바람에 춤을 추는 풍경
그 풍경이들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내지

소리와 풍경이 모여
드디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반석천이구나”라고
반석천의 형태를 알수있게 됐어.

여러가지 근처의 소리와 풍경, 볼수없는 것들도,
바람도 집중해서 느끼고, 듣고, 말해보고,
보면 안보이는 추상적인 것도 볼수있어.

신경을 곤두세워 근처의 풍경을 느끼고
결국엔 반석천 이라는
장소의 더더욱 새로운 느낌을 느낄수있어.









열 네 살의 기록 셋

찾아가면 갈수록 점점 애정이 가는
-유성오일장



시장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사탕가게에서 드는 생각

글 임태이



생각보다 햇빛이 환하게 물들고 이마에서 시작한 땀방울이 턱에서 미련없이 떨어진 여름날, 유성시장을 한걸음 한걸음 돌아보면서 발견한 어쩐지 정겨운 간식가게는 나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여러가지 가지각색의 사탕들을 인간의 수없이 넓은 감정에 빚대어 생각해본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나는 감히 내말이 맞다고 단언 할 순 없지만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면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통틀어 말하는 이름이 있다.

감정의 이름을 예시로 ‘사랑’을 생각해보자. 사랑이라는 감정은 꼭 한가지의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은 틀렸다. 사랑이라는 단순한 감정의 이름 속에는 또 수많은 감정들로 나뉘어진다. 설렘, 행복, 정겨움 등 이 감정들이 모여 사랑이라는 단순한 감정이 된다. 그것이 내가 사탕을 보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 고심해 보게 된 계기이다.

사탕도 인간의 혀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각각의 맛을 뽐낸다. 하나의 작은 사탕이더라도 달콤한 맛만을 선사했다고 하기엔 아쉽다. 달콤한 맛 속에도 여러가지 맛으로 나뉘어지듯이. 어쩌면 그 점이 사탕과 인간의 감정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간식가게 보답하듯이 모동원과 의논하여 한가지 간식을 샀다. 그 간식은 많은 사탕에 둘러싸였음에도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다. 생김새는 메론맛이 날것같은 연두색의 직사각형 젤리였다. 사실 젤리라고 하기도 뭐했다. 옛날 슈퍼마켓에서도 팔것같지 않은 일명 ‘제리’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메론맛을 좋아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간식을 찾아먹는 취미는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샀다. 유성시장에 갔을 당시, 내가 느꼈을 우정이라는 감정의 가장 가까운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복잡한 감정이라는 실물치의 시작을 알리는 실마리를 찾길바란다. 간식을 음미하며.



“오늘도 나는 돈을 물건, 음식으로 바꾸는
시장에 대해 생각한다
나도 시장 상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시장 탐방을 갈 때 또 생각했다
‘아직도 그 옛 어묵가게를 볼 수 있을까?’
가게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다행히 시장에서 옛 어묵가게도 볼 수 있었고 안도감을 느꼈다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된다.”

(글 이정현)

"유성 시장이 사라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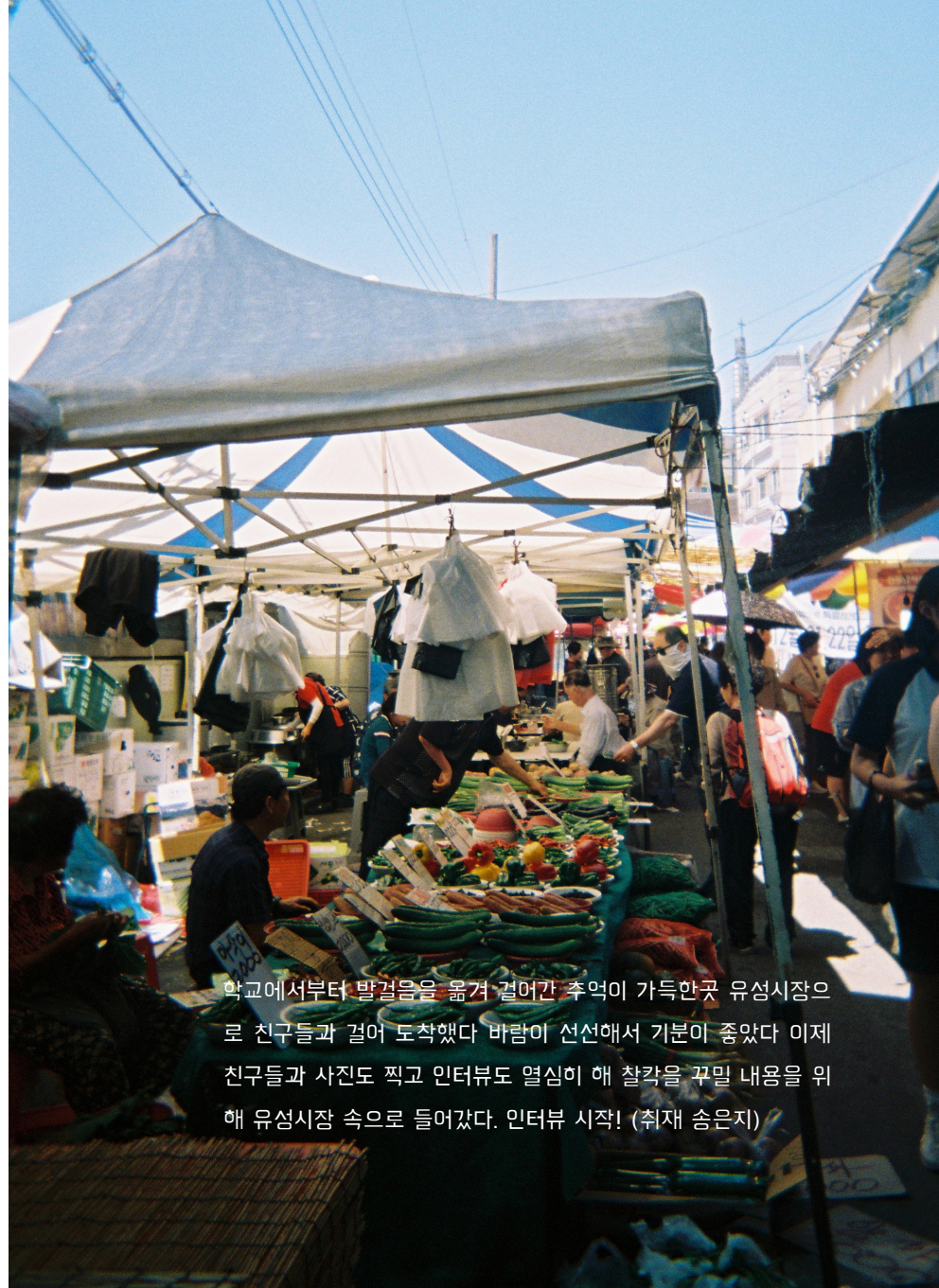
유성구에서 가볼만한 여행지를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유성 시장'이라 답하겠다. 유성구 역사와 함께 마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콘텐츠이자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곳에는 곳곳에 이야기가 흐르고 사람의 온기와 활력이 넘친다. 충남 지역의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포함한 즐길 거리가 여전히 풍성한 유성 시장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산업의 편의와 효율에 밀려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살아있는 현대사 현장인 유성 오일장이 재개발 이슈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잠대중학교는 유성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다. 걸어서 10분, 가족과 함께 장 보러 왔었던 유성오일장은 잠대동 청소년들에게도 유년 시절의 추억이자 삶의 풍경이다. 때문에 잠대중학교 마을 아카이빙 활동에서 1순위로 고려했던 곳이다. 2024년 유성 시장의 오늘을 기억하고자 찰칵 취재단이 탐방을 다녀왔다.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아 두고 싶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왔다. (글 초빙강사 조예은)





**매달 4일, 9일 마다 열리는
전통 오일장의 중심엔
한결같이 그 자리를 가꾸어온
시장 상인들이 있다.**



학교에서부터 발걸음을 옮겨 걸머간 추억이 가득한곳 유성시장으로 친구들과 걸어 도착했다 바람이 선선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열심히 해 찰칵을 꾸밀 내용을 위해 유성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인터뷰 시작! (취재 송은지)

유성시장 어른들에게 묻다

(취재 송윤지, 김연우)

Q.시장에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Q.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때,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Q.시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오가피 나라 사장님 : 21년째 가게를 지키고 있어요. 더운 날에 바깥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니 힘들지. 점점 장사가 안되서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변 상인분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이맛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풍년떡집 사장님 : 30년째 장사 중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나와야 하는게 제일 힘들었지. 그래도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장사하려고 해요. 시장이 사라지는 건, 아쉽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

권가네 농사 사장님 : 26년째 마늘 농사 짓고 팔고 있어요.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마늘 값을 깎아달라고 할 때예요.

정성청과 사장님 : 25년 됐어요. 어린 손님들이 와서 관심을 보일 때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처럼요.(웃음) 과일을 뒤적거리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공주알밤 사장님 : 워낙 오래되서 잘 생각나진 않지만 20년정도 된 것 같네요.저희 밤을 먹으러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들기름에 구운 김 가게 사장님 : 20년 정도 됐어요. 일은 다 힘들죠, 안 힘든 직업들이 어디 있나요.나의 일터인데 너무 아쉽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쉽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그냥 가슴 한 켠에 묻어둬야죠.





유성시장의 인심 좋은 식당 <유성장옥>

(취재 최은총)

은총: 저희 잠대중학교에서 나왔는데 혹시 유성시장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성시장에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유성장옥 사장님: 2002년부터 했거든요. 지금 23년 됐어요.

은총: 시장에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요?

유성장옥 사장님: 사람들에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줄 때 보람을 느껴요.



은총: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 있으실까요?

유성장옥 사장님: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은총: 유성시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손님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성장옥 사장님: 기억에 남는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말 못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항상 와서 팔죽을 드시는 분이 있었는데 한 10년동안 와서 드시다가 요새 안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은총: 사라지는 유성오일장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유성장옥 사장님: 진짜 사라지는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실감이 안 나네요.



주름진 손

글 김연우

내 딸, 내 아들을 위해 유성시장에 나와 주름진 손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하시며 반겨주시는 할머니.

인터뷰를 원하는 우리에게 밝은 미소로 다가와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거다. 좌절할 때 좀 내 곁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났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혹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고민이 있다면 너의 곁엔 항상 누군가 있고 혼자여서 못하는 것을 함께라면 한다. 아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손은 많고 많은 감정, 추억들이 들어있는 듯하다. 영화 <인사이드아웃>의 온갖 감정들이 손으로 들어나는 것 같달까?

할머니의 손을 보며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사셨을지 짐작이 가고 할머니의 인생에 나도 한 점으로라도 남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유성시장의 신선한 바람, 악기점 <빅마켓 뮤직>

(취재 진효주)

“500만원이요”

“네?”

모두가 놀란 가격의 물건은 우쿨렐레였다.

빅마켓뮤직은 시장안에 있다기엔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곳이었다. 마치 우리가 하와이 악기샵에 온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장님은 아주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머리가 매우 곱슬곱슬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이였다. 그 때문에 가게 안은 무언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것 같았다.

우리는 가게 안을 둘러본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언제신가요?”

“전공을 살리면서 돈도 버니 그점에서 보람을 느끼는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시장에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었나요?”

“카우치스 코리아라는 협동 조합에서 대전문화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 거리를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Parade
SUNSET 300
Let
1200.000

Parade
PS2004
Olympic White
285.000

Jupiter
T-Modern5
650.000
499.000

Parade
PS3004
ITS
340.000





고무장갑이 들려준 이야기

-
글 최은총

“혹시 감자 7000원어치 살 수 있을까요..?”

“네네 당연하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 할머니의 한 손에는 낡고 때탄 노란 고무장갑이 끼워져있었다. 낡고 때탄 노란 고무장갑을 보니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노력한 세월이 흘러있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힘든 내색 내시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를 보자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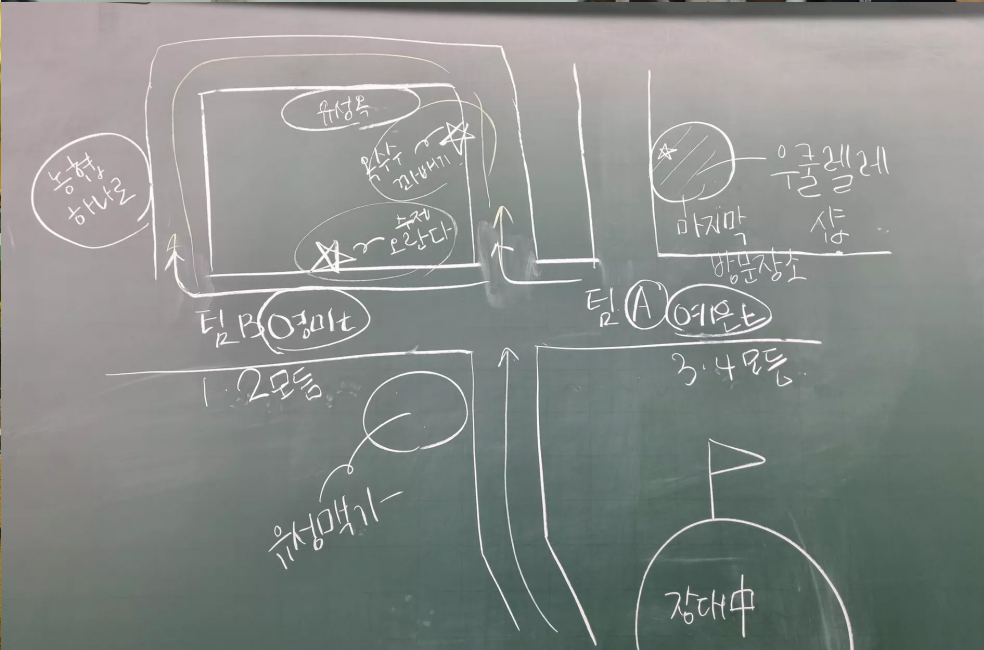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가세요~!”

마트에 진열되어있는 핑크색 고무장갑, 할머니의 한 손에 끼워져 있는 낡고 때탄 노란 고무장갑. 이 두 고무장갑은 같은 고무장갑이지만 느낌은 조금이라도 달랐다. 마트에 고무장갑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뽀뽀해보이고 깨끗한 새것이었다. 생각해보면 지금 할머니의 고무장갑도 시간을 되돌아 돌아가보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새 고무장갑이었을 것이다.

‘아, 같은 고무장갑들이어도 사람을 통해 다 자신의 개성만을 찾아가는구나.’

고무장갑, 말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의 노력들이 고무장갑에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손에 끼워질 고무장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 끼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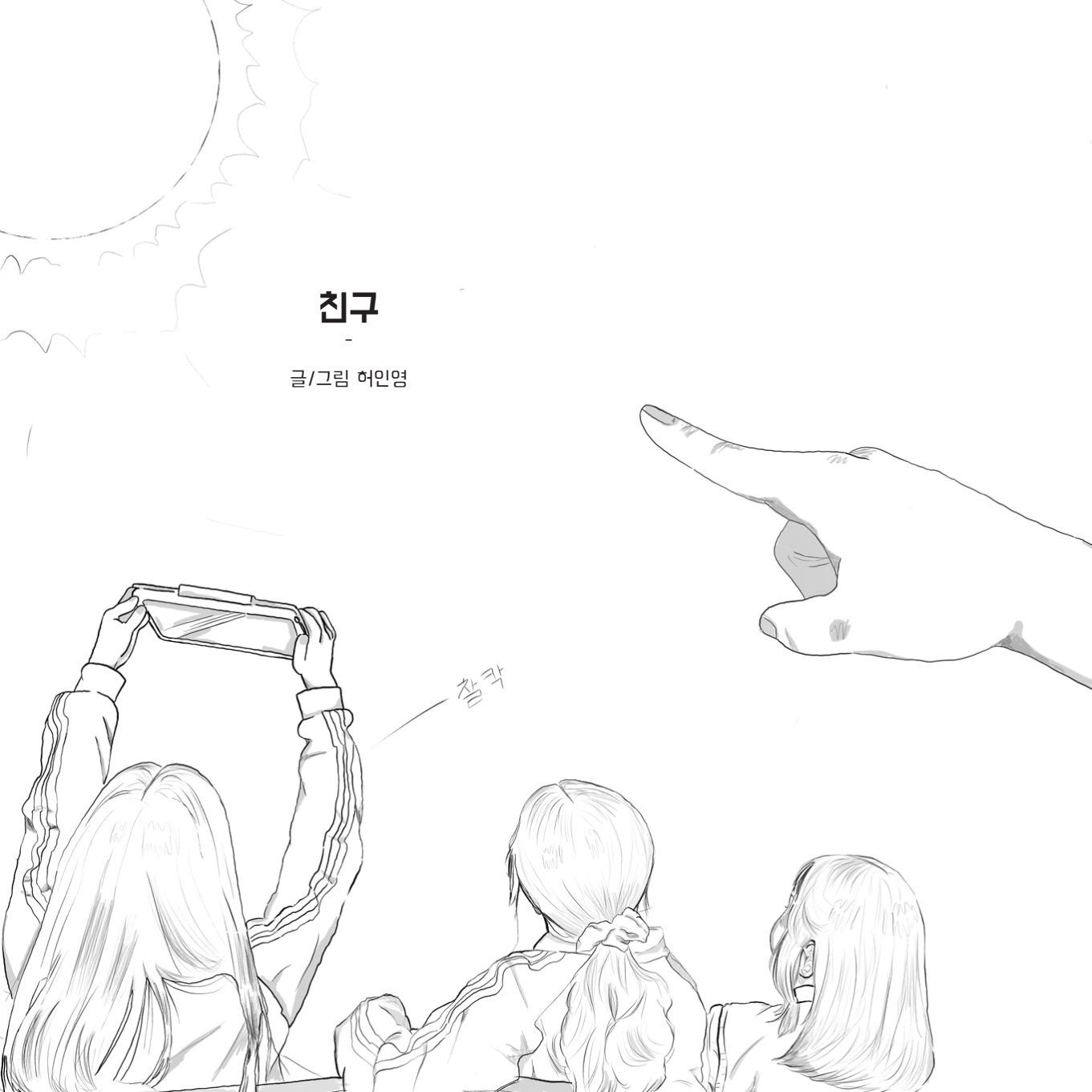






친구

글/그림 허민영



반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내 친구들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내가 화나면 같이 화내주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는 내 친구들
친구들이랑 있으면 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

친구들이랑 함께 있으면
시간가는줄 모르고
친구들이랑 함께있으면 설레고
매일 매일이 기대 된다.

친구들과 간식도 함께 나누어 먹고
친구들과 슬픈이야기도하고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기도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기도 하며

울다가 웃다가 서로 공감해주는 내 친구들
친구들은 나에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나에게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게 아니라
친구들을 보러 가는것만 같다
내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이다.

어제와 똑같이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집에서 나온다.

항상 보는 똑같은 풍경을 보며 걷고 걸어 익숙한 문으로 들어간다.

초록색 철창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보는 풍경이 있다.

신발을 갈아신고 반을 찾아 떠난다.

1-1 우리 반이다. 들어가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핑핑핑~ 종이 울리고 오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벌써 점심시간이다. 달려가고 싶지만 독
서 시간을 어길 순 없다.

똑똑 나오세요. 쿵쿵쿵.

줄을 서고 밥을 먹으러 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제처럼.

어제처럼 지난 주처럼 지난 달처럼.

(글 김연우 / 그림 진효주)





사진 제이픽처스 점다운

(못 다한 이야기)

"잠깐!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요!"

“처음에는 사진만 찍는 줄 알았다. 근데 글쓰고 강의를 들어서 초반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다. 근데 계속하다 보니 재미있었던 것 같다.이 수업 중에 유성 시장에 간것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았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갔기 때문이다. 상인분들도 너무 친절했다. 반석천에도 갔는데 재미있고,원룡이가 풀을 뜯는 모습이 너무 웃겼다.이 수업 덕분에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수 있게된 것 같고,글을 더 잘 쓸 수있게 된 것 같아 선생님께 감사하다.” (이진우)

“<찰각>이라는 책을 만들며 우리는 필름카메라와 아이패드를 들고 모험을 떠났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순간 만큼은 모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좋았다. 항상 눈으로만 봐왔던 필

름카메라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것은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었다. 우리의 모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착지는 유성시장. 점점고 따뜻한 분위기의 유성시장을 필름카메라 안에 남긴다니. 너무 좋았다. 우리는 많은 도착지를 다니며 사진 찍고, 글을 쓰며 우리의 추억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이제 “찰각”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겨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최은총)

“사진 찍는 법이나 글을 써서 정말 재미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이뻐구나를 알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는 수업이 벌써 끝이라니.” (윤서영)



“많은 수업들 중 내 눈에 딱 들어왔던 캡처된 순간들. 기대한만큼 재미있던 수업들도 있었고, 조금은 지루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한 추억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는게 행복하다.” (이점운)

“지금까지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추억들과 유성시장에 마지막 인터뷰가 되었던 사장님들의 많은 마음들이 기억에 남는것 같아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은것 같아 좋았다.”(류원룡)

“필름 여행을 주제 선택으로 고른 내가 자랑스럽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 마을에 관한 글을 써보고, 사진을 찍어보았다. 그리고 애들과 웃고 떠들고 놀이터에서 놀아본 일, 작가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책에 대해 깊게 상의하는 시간이 나에겐 아주 멋진 일이었다. 이 경험으로 글쓰기 능력이 조금은 향상 된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수업에서 배운 글쓰기 팁으로 글을 써보고 싶다.” (김서한)



“내가 모르는 우리 지역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기대로 전문가 특강, 매거진을 위한 기초기획, 기록의 방법 등 여러 수업을 들었다. 연남천 풀다발 책도 읽고 나서 나는 반석천을 갈 생각에 두근거렸다. 반석천을 걸으며 햇빛이 짹짹해서 땀이 났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하천쪽에 모여있었다.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쓰레기들이 많아서 놀랐다.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왜 쓰레기를 줍지 않았던걸까? 그다음 으른 놀이터에 갔다. 애들이 신나보였다. 벚꽃을 던지며 사진을 찍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냇물소리와 함께 우리는 돌다리를 걸었다. 시원한 소리에 내 마음까지 편안해졌다. 거리를 걸으면서 우린 많은 꽃들을 보았다. 가지각색의 풀들도 봤다. 똑같이 생겨 알아볼 수 없었다. 또 우린 반석천에서 필름카메라로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었다. 친구들 사진을 내가 잘찍어줘서 부듯했다. 목표에 다다랐을 때 각자의 개성이 돋보여서 아름다운 꽃다발이 우리를 닮았다.처음엔 더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시원한 냇물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박시은)

“수업을 하면서 유성시장 가기, 반석천 가기 등등 여러가지 활동을 해서 재미있었다. 또, 글을 쓰는데에는 많은 아이디어와 지식, 실력이 필요한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다.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윤서점)

“수업을 듣는 동안 매번 즐거웠다. 직접 책을 만든다니 신기해서 더 열심히 참여했다. 이곳 저곳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고 이런 내 글이 나오니 정말 부듯했다. 수업을 듣기 전 보다 어휘력과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성장한것 같아 좋은 경험이었다.” (진효주)

“반석천에는 여러 많은 식물이 있었다. 그 식물을 하나씩 찍어 꽃,풀다발을 만들었다. 시들지만 않는다면 계속 간직하고 싶을 정도였다. 오래된 우리 유성시장을 이제 볼수 없다고 하여 아쉬웠다.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오래

된 시장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 지역의 역사에 더 좋을 것 같다.” (이소윤)

“나의 중학교의 첫번째 봄과 여름을 필름에 담아 놓으니 친구들의 추억에 내가 들어간 것이 기뻐다. 가지 않을 줄 알았던 시간이 막상 가니 아쉬움이 나도 모르게 짙게 남아있다. 친구들과 웃으며 찍었던 사진들에 웃음도 남아있어 순수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다. 자주 글을 쓰던 나에게 ‘순수한 우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나의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 이 글도 매거진을 위한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글을 쓴다는 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것을 깨달았다. 함께한 많은 책들과 사진들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다. 함께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나의 글쓰기에 뮤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송윤지)



추억의 조각이 된 캡처된 순간들

글 지도 교사 김영미

‘캡처된 순간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마을교육과정으로 기대했던 만큼 그 결과도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다.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조수현 주무관님, 버찌책방지기 조예은 작가님, 그 외 관계자 여러분과 여러 번의 협의회를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전장대중학교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나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다. 유성구청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다양한 현장 학습과 체험 활동이 가능해졌고, 이는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반석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유성시장 탐방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교실에서의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유성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독립서점 사장님, 사진작가 등 마을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가 왜 마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으며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유성온마을별 연계 사업은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는 학교생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와 유성구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유성온마을별 연계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배움으로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 학기동안 우리 장대중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해 주신 조예은 작가님과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조수현 주무관님, 임다은 작가님, 강병진 대표님, 정다운 대표님, 전민제 디자인 스튜디오 실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카미빙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주신 지역 전문가들: (우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슬로먼트 스튜디오 전민제 실장 / 머물다가게 임다운 대표 / 어라운드 강병진 대표 /
제이픽처스 점다운 대표 / 버찌책방 조예은 대표

2024 유성On마을별
대전장대중학교 마을 아카이빙 매거진

유성On마을별★ 찰칵!



발행일 2024년 7월

발행처 유성구청 교육과학과



이 매거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복이음교육지구와

유성구 나래이음교육지구

마을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Big thanks to 찰칵 기사단:

(1모듬 : 그털만도하조) 김진효

이진우

최은총

윤서영

(2모듬 : 지금2순간) 이정윤

류원룡

임태이

이정윤

(3모듬 : 3각김밥) 김서한

이정현

박시은

윤서정

(4모듬 : 4진잘찍조) 이소윤

진효주

송윤지

허인영



